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이 명 희 · 이 은 실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Appearance Interest and Self-Confidence of Elderly Women Associated with Demographic Variables

Myounghee Lee · Eunsil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1997. 6. 10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appearance interest (clothing interest and body adornment) and self-confid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and allowance,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s of clothing interest and body adornment on self-confidence of elderly women.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samples of 215 elderly women (ages 60 to 70) in Seoul, Korea. The instrument was a questionnaire and the survey was done in face-to-face method.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adornment according to age. After age was controll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earance interest and self-confidence according to educ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earance interest and self-confidence according to allowance.

2. Education and allowance had a direct effect on clothing interest. Allowance, age, and education had a direct effect on body adornment. Education had a direct effect on allowance.

3. Clothing interest and allowance had a direct effect, and education had an indirect effect on self-confidence. Body adornment and allowance had a direct effect on self-confidence, education and age had an indirect effect on self-confidence.

The present findings provide that appearance interest such as, clothing interest and body ador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confidence of elderly women. It appeared that the connection between body adornment and allowance was stronger than the connection between clothing interest and allowance. The causal relationship of clothing interest on self-confidence was stronger than the causal relationship of body adornment on self-confidence. The clothing interest was a variable that most affected on self-confidence of elderly women.

I. 서 론

현대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더욱 증가시켰다. 우리 나라의 경우 95년에 전체의 5.9%였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 7.1%, 2022년 14.3%, 2030년 19.3%로 늘어나 노령 사회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선일보, 1997).

이렇듯 증가하는 오늘날의 노인 인구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계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의류학 분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노인 의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과거에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노인은 소비의욕이 떨어지는 소비자로서 가치를 낮게 보았지만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마케팅이 21세기의 유망한 산업으로 주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마케팅 연구자들은 노인이라는 의미의 'elderly'가 오늘날의 노인들에게는 적당하지 않다고 여기며 다시 나이를 계산한다는 의미로 노인을 'young-again-rich market'이라고도 칭한다(Shim, 1997).

전통적으로 노인은 심리·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사회활동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는 과거보다 자신과 타인에 의해 노인으로 인지되는 연령이 차츰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소외감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서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임치경, 1984). 따라서 오늘날 노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의복을 포함한 외모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신감은 열등감과 대립되는 특성으로 여러 가지 생활장면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 태도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성격특성이다(신순옥, 1988).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복은 그들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감을 가지는 데 있어 의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감이 상실되는 노년기에 의복은 외모의 향상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노

년 여성들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노인 소비자의 다양해져 가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외복관심, 신체장식)과 자신감에 대하여 인구통계적 변인(연령, 학력, 용돈)에 따른 차이를 파악한다.

2. 노년 여성의 외복관심, 신체장식 및 인구통계적 변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 여성과의 의복

노년기는 인간발달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정의와 구분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다.

Birren과 Cunningham(1989)은 노인을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학적인 면에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조직기능이 연령의 증가에 의해 자신의 조절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의 역할과 기질이 감소하며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적응력과 정서적인 면이 변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노인이란 노화에 따라 신체·정신적 노쇠와 사회적 역할의 감소로 의존적이며,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孝'라는 개념으로 보장하여 연장자로서 권위를 갖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서명숙, 1994).

노인에 대한 구분은 일정한 연령에 의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노인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있다. 연령에 의한 노인에 대한 구분으로 '60~70세'를 젊은 노인(young-old)으로 '70세 이상'을 늙은 노인(old-ol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으로서 자기 개념은 60세 이후로 자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전재일, 1979;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1984; 한국여성개발원, 1989). 그 이유는 신체적 노쇠현상, 60세의 정년퇴직과 함께 전통적으로 60세에 환갑을 하기 때문이다.

노년기에는 물질적인 면에서 만족하더라도 심리적인 만족을 원하며 사회나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심리적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사회활동은 생활만족

도를 높여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김명자, 1982; 홍순혜, 1984; 김효심, 신효식, 1995). 이때 의복은 인간생활의 수단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내면을 반영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차츰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Workman과 Johnson(1989)의 연구에서는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이 노인의 고정관념을 완화시켰다. 즉 의복 청결함이 노인의 기억 능력과 성격에 관해 형성된 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들의 약화된 사회적 권위 및 활동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주게 된다.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신장이 줄어들고 머리는 숙여지며, 가슴, 배, 엉덩이 부위는 증가하는 반면, 하지부는 가늘어지고 등과 어깨가 두터워져 등이 굽은 형태를 나타낸다(김혜경, 1993).

노년 여성이 선호하는 의복의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평범하며 무난하고 안락감을 줄 수 있는 스타일(유경숙, 1984)과 풀워있는 옷차림을 선호하였다(최금순, 1995). 또한 셔츠 칼라와 브이 네크라인, 바지보다는 스커트, 허리 구분이 없는 편한 스타일과 정숙한 디자인의 의복을 선호하며(Richard, 1981), 무늬가 없는 단색이나 꽃무늬, 구김이 가지 않고 부드러운 질감을 좋아하였다(조은주, 1988; 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 1996). 한편 한국 여성 노인들은 한복 중심의 의생활을 하였고 정숙성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었으며, 클래식한 의복의 형태를 선호하였다(김재숙, 1991).

김영애(1991)의 연구에서 노년 여성은 대체로 기성복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나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성복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또한 노년 여성은 젊은 층 위주의 색상에 불만이 많았고 유행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김순구(1993)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의복행동의 관련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은실, 이명희(1995)는 라이프 스타일이 외부활동적이고 적극적 생활형인 노인 여성은 의복관심이 더욱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년 여성은 대체로 의복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년 여성의 의복은 심리적 측면의 기능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외모관심과 자신감

외모관심이란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신체장식에 대해 갖는 지속적인 흥미를 말한다. 노인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타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한다(Ryan, 1966, 316-317).

의복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시기는 청소년기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Ryan, 1966, 241-301). 그러나 Harvighurst(1952)는 어울리는 의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노인에게 있어서는 의복이 노화에 대한 합리적 방어라고 하며, 신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노년기에는 젊은이보다 더욱 의복에 관심을 두어서 의복으로 그들의 신체적 매력 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노년기에 의복은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어 적절한 의복이 부족할 때 사회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Ebeling and Rosencranz, 1961). 실제로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노인은 외모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Hurlock, 1976, 323-324). 또한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노인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과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정희용, 1987).

Cannon, Staples 및 Carlson(1952)의 연구에서 외모와 인기도 사이에, 사회활동과 외모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김미경(1990), 전은진(1990)의 연구에서도 성취욕이 높은 여성은 전반적으로 의복 및 장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옥희(1985)의 연구에서 대체로 노년 여성은 연령이 높아도 화장을 하여 정리된 용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니며 용모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고 하였다.

자신감이란 자신의 자아를 신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종하고 심지어 새롭고 다른 것을 탐구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Jenkins, 1973). 김기석(1970)은 자신감을 열등감과 대립되는 특성으로 여러 가지 생활장면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태도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성격특성이라 정의하고, 사교성, 지배성, 정서적 안정성을 그 하위 특성으로 설명하여 이들 특성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자신감은 열등감과 대립되는 차원에서 우월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월감이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든지 타인에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뜻하며, 우월감이 높을 때는 자기 과시 행동이 나타난다(이상노, 변창진, 진위교, 1969). Ryan

(1966, 300)은 자신감과 자아충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의복을 잘 입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자신감과 의복을 잘 입는 데 대한 자기 평가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Thompson (1962)은 유행치료요법(fashion therapy)에서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의상 및 화장 등으로 외모가 개선됨으로서 외모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고 대부분의 환자들의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조필교, 구은영(1986)의 연구에서는 패션을 남보다 먼저 시도하거나 주도해 나가는 패션 리더들은 자신감이 높고 아주 사회적이며 지배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감이 클수록 유행선도력이 높았다. 조기여, 유태순(1997)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화장을 할 때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 외모 및 유행에 대한 관심은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활동과도 상관이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Harvighurst, 1952; Ebeling and Rosencranz, 1961; 정희용, 1987)를 기초로 볼 때 노년 여성에게서도 의복은 신체적 매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며 의복관심이나 적절한 의복소유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여 사회적 활동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고 나아가서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관심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이 거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관심과 신체장식이 노년 여성의 자신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한 면접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자신감 측정문항, 의복관심 측정문항, 신체장식 측정문항, 인구통계적 변인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신감 측정은 Jenkins(1973), 김미영(1989), 손미영(1988)의 연구에서 선택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총 5문항이며 5단계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5문항의 Cronbach의 α 신뢰도는 .80이었다.

외모관심은 의복관심과 신체장식을 포함하였다. 의

복관심은 이영선(1991)의 연구에서 8문항을 택하여 조사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5단계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8문항의 α 신뢰도는 .84였다. 신체장식 문항은 화장과 액세서리의 착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가지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화장 정도는 '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음', '② 기초화장(로션, 스킨로션)만 함', '③ 기초화장에 화운데이션(컴팩트)만 함', '④ 기초화장에 립스틱만 함', '⑤ 기초화장에 색조화장(립스틱, 볼펜지, 눈화장 등)을 함'의 5단계로 측정하여 1~5점을 주었다. 액세서리 착용정도는 '① 전혀 안함', 반지·브로치·목걸이 중 '② 1개 착용', '③ 2개 착용', '④ 3개 착용'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액세서리의 착용정도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신체장식 문항의 점수 범위는 2~9점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의 문항은 연령, 학력, 용돈을 조사하였다.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1993년 7월 중에 시행하였다. 표본으로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60대와 70대의 노년 여성 2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여 백화점이나 시장,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한 임의표집과 제보자표집을 하였다. 제보자표집은 연구대상자가 또 다른 연구대상자를 소개하는 방법이었다(조복희, 1992, 91-92). 백화점 및 시장에서 표집한 비율은 44.7%이며 노인대학은 20.9%이고 제보자표집은 34.4%였다. 백화점의 경우는 커피숍이나 휴게실에 앉아 있는 피험자에게 접근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장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의자를 놓은 후 길을 지나가는 피험자를 섭외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노년층이었으므로 설문지의 내용을 피험자에게 읽어주고 조사자가 대답을 설문지에 기록하는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당 소요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표본의 분포를 보면 연령은 60~64세가 32.1%, 65~69세가 31.6%, 70~74세가 24.7%, 75~79세가 11.6%였다. 학력은 무학과 서당이 15.4%,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40.9%, 중고등학교 졸업이 37.6%, 대학교 졸업 이상이 6.1%였다. 용돈은 5~10만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10~20만원은 27.9%, 20만원

이상과 5만원 미만이 각각 19.5%, 19.1%의 분포를 나타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Duncan의 다중범위검증(multiple range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변인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심 및 자신감의 차이

연령에 따른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령에 따른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의 차이

연령 종속변인	60~64 (n=69)	65~69 (n=68)	70~74 (n=53)	75~79 (n=25)	F
의복관심	26.55	25.34	26.58	27.68	1.31
신체장식	6.91(a)	6.01(b)	5.74(bc)	4.88(c)	8.37**
자신감	16.16	16.35	15.43	15.32	.81

**p<.01 abc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신체장식에서만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장식 수준은 60대 전기 집단이 가장 높았고, 70대 후기 집단이 가장 낮았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장식을 적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비교적 높은 연령층일 경우에는 신체장식보다 자신의 불편한 신체로 인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의복관심과 자신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연령을 통제한 후 학력에 따른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의 차이를 공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노년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 것으로 사려 되어 본 조사에서 순수하게 학력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였다.

<표 2> 연령통제 후 학력에 따른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의 공변량분석

변량원		df	의복관심 F	신체장식 F	자신감 F
연령(공변인)		1	.62	30.54**	3.09
학력		3	7.43**	6.87**	4.11**
오차		210			
독립변인	속성	n	평균	평균	평균
학력	초등중퇴이하	56	23.70(b)	4.96(b)	14.27(b)
	초등교졸	65	27.98(a)	6.11(a)	16.43(a)
	중학교졸	36	26.42(a)	6.86(a)	16.39(a)
	고졸이상	58	26.88(a)	6.72(a)	16.74(a)
계		215	26.31	6.10	15.94

**p<.01 ab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결과

<표 2>에서 모든 변인이 학력에 따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그 이하 집단보다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외모관심과 자신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행동의 관여가 높다는 김순구(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용돈 지출에 따른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용돈 지출에 따른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의 차이

용돈 종속변인	5만원미만 (n=42)	5~10만원 미만 (n=72)	10~20 만원미만 (n=60)	20만원이상 (n=41)	F
의복관심	24.95(b)	25.18(b)	26.50(b)	29.39(a)	6.61**
신체장식	5.17(c)	5.54(c)	6.47(b)	7.51(a)	14.93**
자신감	15.29(b)	14.76(b)	15.97(b)	18.66(a)	10.14**

**p<.01 ab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

<표 3>에서 볼 때 용돈에 따라 의복관심, 신체장식, 자신감 모두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용돈 지출이 20만원 이상인 집단이 모든 변인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신체장식은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의 각 집단에서 각각 차이를 보여 용돈에 따른 신체장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용돈 지출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외모관심과 자신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관심, 신체장식, 자신감의 차이에서 노년 여성은 학력이 높고 용돈 지출이 많을수록 신체장식 및 의복관심도가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장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도나 구매력이 높아 의복과 신체장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인은 경제력 상실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운데, 용돈은 노인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정도와 계층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 정희용(198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금순(1995)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2.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

1) 각 변인간의 단순상관관계

먼저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행렬표 (n=215)

변인	자신감	의복관심	신체장식	연령	학력
의복관심	.456**				
신체장식	.359**	.375**			
연령	.117	.052	-.342**		
학력	.258**	.227**	.368**	-.329**	
용돈	.301**	.229**	.411**	-.042	.282**

** $p < .01$

<표 4>에서 각 변인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신감은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복관심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의복관심은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상관이 있었다. 신체장식은 연령과의

관계에서 $p < .01$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력 및 용돈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력은 용돈과 $p < .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2) 변인들간의 회귀분석 및 인과모형

각 변인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beta 계수를 사용하였다(그림 1~3).

용돈, 연령, 학력이 의복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학력(beta=.222)과 용돈(beta=.172)은 의복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두 변인의 설명력은 9.7%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고 학력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은 의복관심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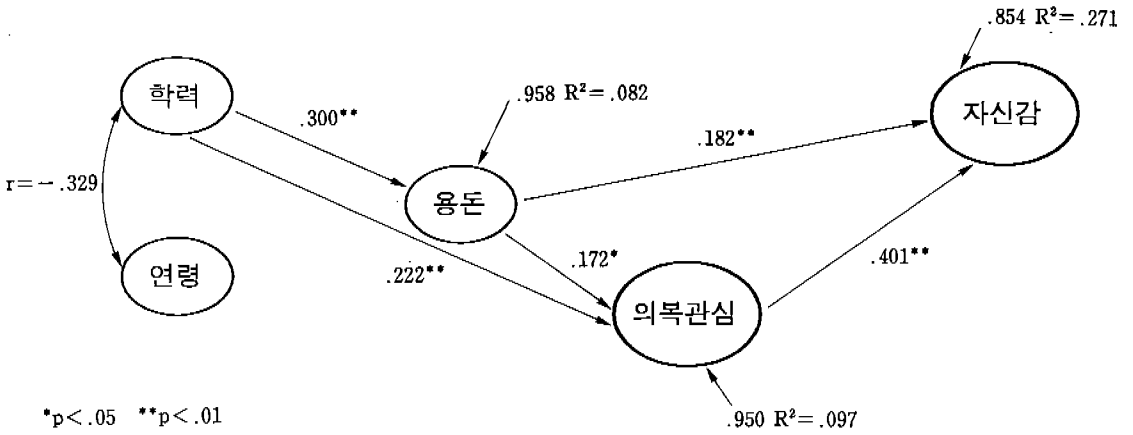
의복관심, 용돈, 연령, 학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인과모형 I에서 의복관심(beta=.401) 및 용돈(beta=.182)은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신감에 대한 그 두 변인의 설명력은 27.1%였다. 한편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용돈이 학력 및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력은 용돈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beta=.300, $p < .01$), 그 설명력은 8.2%였다. 연령은 용돈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학력은 의복관심 및 용돈을 통하여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Ebeling과 Rosencranz(1961), 정희용(1987)의 연구에서 의복이 심리적 안정감이나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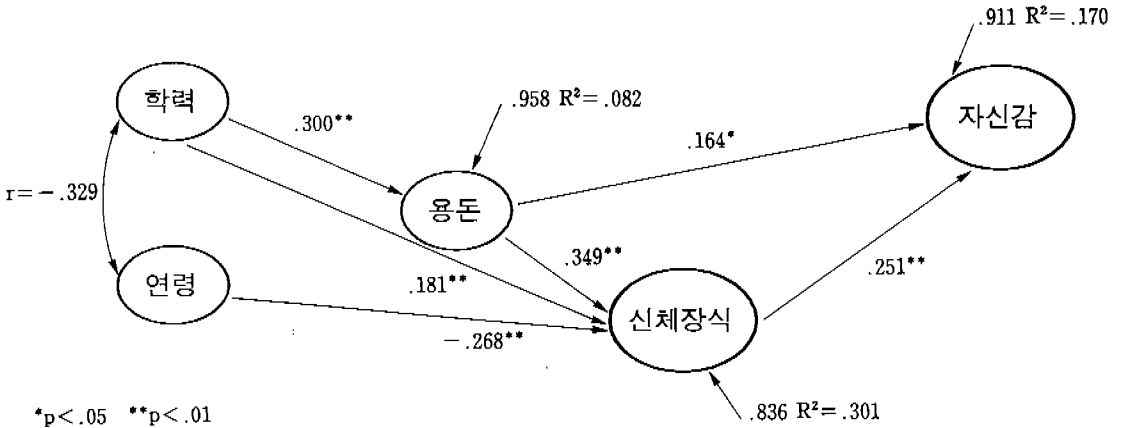
<표 5> 인과모형 I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분석

변인	B	beta	t	R ²
DV: 의복관심				
연령	.140	.132	1.902	R ² =.097
학력	.725	.222	3.074**	F=7.537**
용돈	.563	.172	2.523*	constant=10.610
DV: 자신감				
의복관심	.287	.401	6.472*	R ² =.271
용돈	.426	.182	2.921**	F=19.531**
연령	-.078	-.103	-1.637	constant=10.480
학력	.190	.082	1.226	

* $p < .05$ ** $p < .01$ DV=종속변인



[그림 1]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I



[그림 2]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II

을 주었다고 한 내용을 지지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신감과 의복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Ryan, 1966, 300)와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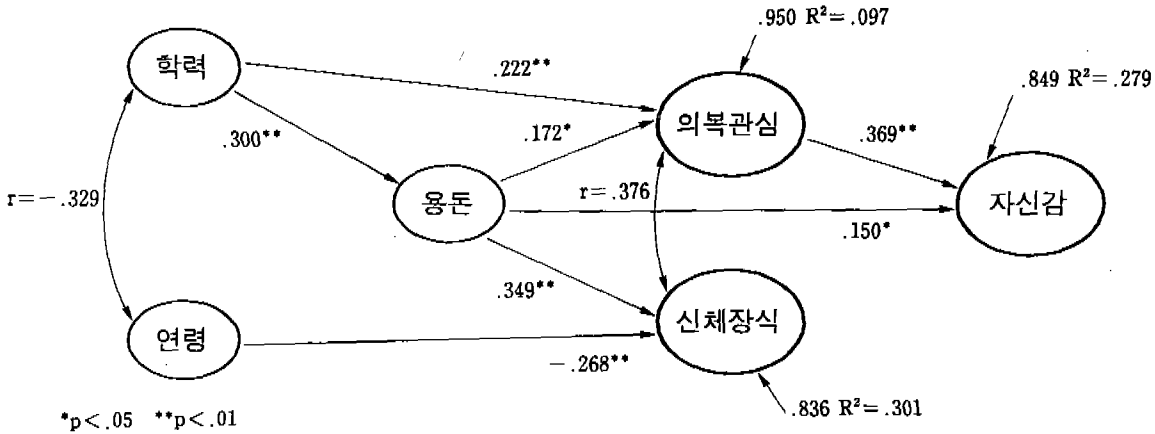
용돈, 연령, 학력이 신체장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그 세 변인 모두 신체장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beta = .349 / -.268 / .181), 설명력은 30.1%였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장식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용돈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그림 2).

신체장식, 용돈, 연령, 학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표 6>과 인과모형 II에서 신체장식(beta = .251) 및 용돈(beta = .164)은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

<표 6> 인과모형 II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분석

변인	B	beta	t	R ²
DV: 신체장식				
용 돈	.412	.349	5.810**	R ² = .301 F = 30.367** constant = 9.803
연 령	-.102	-.268	-4.384**	
학 력	.213	.181	2.849**	
DV: 자신감				
신체장식	.500	.251	3.340**	R ² = .170 F = 10.743** constant = 8.643
용 돈	.383	.164	2.317*	
학 력	.292	.125	1.768	
연 령	.013	.017	.244	

*p < .05 **p < .01 DV = 종속변인



[그림 3]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III

<표 7> 인과모형 III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분석

변인	B	beta	t	R²
DV: 자신감				
의복관심	.264	.369	5.614**	R² = .279 F = 16.146** constant = 8.591
신체장식	.218	.110	1.472	
용돈	.350	.150	2.263*	
학력	.161	.069	1.029	
연령	-.053	-.070	-1.039	

*p < .05 **p < .01 DV = 종속변인

을 주었고, 자신감에 대한 그 두 변인의 설명력은 17.0%였다. 학력은 신체장식과 용돈을 통하여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연령은 신체장식을 통하여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7>과 인과모형 III은 의복관심, 신체장식, 용돈, 학력, 연령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인과모형에서 의복관심(beta = .369, p < .01)과 용돈(beta = .150, p < .05)은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의복관심은 자신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신감에 대한 그 두 변인의 설명력은 27.9%였다. 학력은 의복관심 및 용돈을 통하여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인과모형 III에서 신체장식이 자신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은 신체장식이 의복관심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서 의복관심과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볼 때 노년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관심의 자신감에 대한 인과관계가 신체장식의

자신감에 대한 인과관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 여성의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매력 증진에는 화장이나 장신구와 같은 신체장식보다 옷차림으로 외모를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노년 여성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노인들의 화장 및 장신구를 통한 외모치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의복관심, 신체장식)과 자신감에 대하여 인구통계적 변인(연령, 학력, 용돈)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인구통계적 변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년 여성의 신체장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장식 수준은 60대 전기 집단이 가장 높았고, 70대 후기 집단이 가장 낮았다. 의복관심과 자신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2. 노년 여성의 연령을 통제한 후, 학력에 따른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의 차이를 볼 때, 학력에 따라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외모관심과 자신감이 더 높았다.

3. 용돈 지출에 따라 의복관심, 신체장식 및 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용돈 지출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세 가지 특성이 모두 더 높았다.

4. 용돈, 연령, 학력이 의복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결과, 학력과 용돈은 의복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beta = .222/.172$), 그 두 변인의 설명력은 9.7%였다. 연령은 의복관심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용돈, 연령, 학력이 신체장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그 세 변인은 모두 신체장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beta = .349/-.268/.181$), 설명력은 30.1%였다.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용돈은 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beta = .300$), 그 설명력은 8.2%였다. 연령은 용돈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5. 의복관심, 용돈, 연령, 학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인과모형에서 의복관심 및 용돈은 자신감($\beta = .401/.182$)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신감에 대한 그 두 변인의 설명력은 27.1%였다. 학력은 의복관심 및 용돈을 통하여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6. 신체장식, 용돈, 연령, 학력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인과모형에서 신체장식 및 용돈은 자신감($\beta = .251/.182$)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신감에 대한 그 두 변인의 설명력은 17.0%였다. 학력은 신체장식 및 용돈을 통하여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연령은 신체장식을 통하여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7. 의복관심 및 신체장식이 용돈, 학력, 연령과 함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인과모형에서 의복관심과 용돈은 자신감($\beta = .369/.150$)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신감에 대한 그 두 변인의 설명력은 27.9%였다. 학력은 용돈과 의복관심을 통하여 자신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신체장식은 자신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노년 여성은 학력이 높고, 용돈지출이 많을수록 신체장식 및 의복관심도가 높았으며, 특히 의복관심도는 노년 여성의 자신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용돈이 의복관심에 미치는 영향보다 용돈이 신체장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의복관심 → 자신감의 인과관계가 신체장식 → 자신감의 인과관계보다 더 큰 편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노년 여성의 의복관심과 용돈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이며, 특히 의복관심은 노년 여성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준 변인임을 밝힌 것이다. 즉 의복관심도가 높은 노인은 의복을 통해 신체

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므로, 적절한 의복이 자신의 외모와 생활에 대한 확신을 지니게 하여 전반적인 자신감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노년 여성의 신체장식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신체장식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활동이 노인의 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노인의 의복태도와 심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석(1970). 「일반성격검사 실시요강: 중·고·대·일 반응」. 서울:코리안 테스트 센터.
-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김미경(1990). 의복착용동기와 욕구 및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미영(1990). 생활양식 유형과 의복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순구(1993). 성인 및 노인집단간의 인구통계적·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영애(1991).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숙(1991).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 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 노인의 의생활 양식과 관련지어.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진구, 서미아, 이유경, 이선희(1996).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내 거주 노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1), 57-74.
- 김혜경(1993). 노년기 여성의 체형분석에 따른 의복설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7, 135-145.
- 김효심, 신희식(1995).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66-73.
- 서병수(1994). 「노인연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손미영(1988). 여성 기성복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스타일 변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순옥(1988). 자신감과 사회경제 수준에 따른 Fashion Leadership.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경숙(1984).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

- 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상노, 변창진, 진위교(1969).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 중학교-성인용」.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이영선(1991). 소비자의 의복관여와 외적정보탐색.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옥희(1985). 노년기 여성의 의복선호와 외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은실, 이명희(1995). 노년기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관여에 관한 연구. 「복식」, 25, 233-247.
- 임치경(1984).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은진(1990). 성취동기와 의복스타일 선호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재일(1989). 노인으로서 자기개념의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 1-23.
- 정희용(1987).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기여, 유태순(1997). 자기효능감, 확장근접도, 의복근접도의 상관관계. 「복식」, 32, 183-200.
- 조복희(1992). 「가정학 연구 방법론」. 서울 : 교문사.
- 조선일보(1997. 4. 23). 2030년 한국은 노령사회.
- 조은주(1988). 노년기 여성의 의복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 조필교, 구은영(1986). 패셔리더쉽과 자신감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2), 51-57.
- 최금순(1995). 중년기와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84). 「한국 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 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에 위한 기초실태 조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Birren, J.E. & Cunningham, W.R. (1989). Research on Psychology of Aging. i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3-34.
- Cannon, K.L., Staples, R., & Carlson, I. (1952). Personal Appearance as a Factor in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Home Economics*, 44(9), 710-713.
- Ebeling, M. and Rosencranz, M.L. (1961).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6), 464-465.
- Harvighurst, R.J. (1952, Jan.). Social and psychological needs of the aging. in *Social Contribution by the Aging*, *Ann. Am. Acad. Pol. & Soc. Sci.* 279, 16, cited by Ebeling, M. and Rosencranz, M.L. (1961).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6), 464-465.
- Hurlock, E.B. (1976).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Jenkins, M.C. (1973). *Clothing and Textile Evaluative Criteria: Basis for Benefit Segmentation and Reflection of Underlying Val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Richard, M.L. (1981). The Clothing Preference and Problems of Elderly Female Consumer. *The Gerontologist*, 21(3), 263-267.
- Ryan, M.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him, S. (1997). Fashion Marke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for Future Research. 「한국의류학회 패션마케팅 연구의 창립 총회 및 특별강연」, 11.
- Thompton, T. (1962). Fashion Therapy. *Journal of Home Economics*, 54(10), 835-836.
- Workman, J.E. & Johnson, K.P. (1989). The Role of Clothing in Perpetuating Age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81(3), 11-15.